

□ 국어연구소 소식

‘표준어 모음’ 발간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98-2호)의 보완 작업의 하나로 국어연구소에서 原案을 마련하고, 문화부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표준어 모음’이 지난 9월 14일 문화부 공고 제36호로 발표되었다. ‘표준어 규정’이 고시(88년 1월 19일)된 이후, 표준어 사정의 일반 원칙은 세워졌으나, 표준어 여부가 문제되는 개별 단어에 대해 심의를 할 때, 일반 원칙에 어느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異見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표준어 모음’을 제시함으로써 각 사전간에 보이는 표제어의 발음과 형태의 혼란【등을 바로 잡고 국어생활의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표준어 모음’은 새한글사전(한글학회, 1965/1986)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에서 표제어로 제시한 단어가 일치되지 않는 고유어와, 사전에서 그 고유어에 관련지어 놓은 단어를 대상으로 표준어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관련 단어’에는 한자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 심의 기준은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표준어 모음’은 심의 내용에 따라 ‘어휘 선택’ 부분과 ‘발음(장단/경음)’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어휘 선택 부분은 ‘표준어 규정’의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라 심의한 부분이고, ‘발음’ 부분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심의한 부분이다.

한편, 이번 국어생활 제22호(1990·가을)에는 이 ‘표준어 모음’을 부록으로 실어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